

# 화성시 문화자치 참여 시민 협의체 2차회의 결과

## □ 문화예술교육 분과 [2022. 9. 26.(월) 10:00 / 창문아트센터]

구분	내용
<p><b>교육자의 입장에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논의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중1부터는 교육이 중요해져서 문화 수업 참여율이 저조해짐 → 교육과 진로를 기반한 놀이 형태 교육이면 좋을 것 같음</li> <li>· 학습시간 외에도 멘토를 해줄 사람이 필요함</li> <li>· 청소년들은 정해진 시간이 없어 문화 활동이 힘들기 때문에 문화향유 시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</li> <li>· 문화행사에 청소년을 모으는 것이 너무 힘들</li> <li>· 학부모가 보내지 않거나 교육에 관심 없는 친구들은 PC방 가거나 극과 극의 형태</li> <li>· 비행 청소년의 멘토 역할이 있으면 함</li> <li>· 마을과 학교를 이어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며,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진행해야 참여율이 높음</li> <li>·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학교 내외 운영 여부와 지원 유무가 중요</li> <li>· 교육청과 연계하여 사업 운영 필요</li> <li>· 교육청, 화성시청 등 ‘관’이 중간 역할하면 신뢰감이 높아져 참여율이 향상될 것</li> <li>· 요즘 청소년들은 피·교육자를 넘나드는 세계로 문화 교육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음</li> <li>· 학교에서 장소만 제공해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, 일부 선생님의 경우 업무확대로 인해 기피하는 경향 있음</li> <li>· 교장 선생님의 문화인식이 열려있을 때 가능한 것 같음</li> <li>· 봉사활동 의무화가 없어졌는데, 다양한 봉사활동 기획을 했으면 함</li> <li>· 대상별 생활패턴(라이프 스타일)을 분석해서 기획 필요</li> <li>·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타겟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결과가 좋지 않음</li> <li>· 사람에 대한 분석이나 이해가 우선되어야 결과가 풍성해지며, 그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봄</li> </ul>
<p><b>강사 등록 프로그램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거점 만들고 강사 등록 프로그램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음</li> <li>· 강사 인력 프로그램 있지만 몰라서 잘 사용하지 않음</li> <li>· 강사 인력풀 등 우리 협의체에서 기준을 잡아주었으면 함</li> <li>· 강사 인력 프로그램 등록 위해 문화예술사가 필수적인지 검토할 필요 있음</li> </ul>
<p><b>지역 문화격차 해소 방안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며 병행하였으면 함</li> <li>· 문화예술교육에서는 지역 불균형이 해소 되어 보임</li> <li>· 문화 거점공간을 활용해서 사업을 운영하였으면 함</li> </ul>

<p><b>협의체 운영방향 제언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민 총회처럼 공연·교육 등 복합적인 모델 진행</li> <li>· 협의체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공론의 장 운영</li> <li>·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만드는 작업을 할 필요성 있음</li> <li>· 경기문화재단 워크숍 결과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본계획이 내년부터 시작됨</li> <li>· 중앙의 예산이 지방으로 예산되는데 화성시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필요 있음</li> <li>· 5개년 기본계획 세워서 운영 필요</li> <li>· 프로그램을 어떻게 누가 지원하는지, 제정 확보, 협력 구축 등 제언을 만들 전체적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음</li> <li>·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역의 한계를 그었으면 함</li> <li>·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규격화할 필요 있음</li> <li>· 앞으로 회의 방향이 파편적인 것 보다 전체적인 방향으로 가길 바람</li> <li>· 큰 틀을 가지고 가면서 세부적인 것을 조명할 필요 있음</li> <li>· 논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행 필요</li> <li>· 회의 종료 후 함께 식사하며 교류하였으면 함</li> </ul>
<p><b>기 타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하여 문화예술 행사가 소음이 되지 않도록 협조 필요</li> <li>· 주민 총회 하는데 공연이랑 같이 함. 부스도 운영하면서 분위기 풀어지고 주민도 더 모이고 좋았음</li> <li>· 외부 행사 운영 시, 민원이 발생하여 행사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음</li> <li>· 일반인들은 문화예술에 대해 잘 모르나, 기초적인 것들을 교육받다 보면 참여율이 올라갈 것</li> </ul>

□ 공연·전시 콘텐츠(문학) 분과 [2022. 9. 26.(월) 14:00 / 화성시민대학]

구분	내용
<p><b>축제 운영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축제가 너무 집중되어 있음 ex. 송산 포도축제와 송산 주민음악회 중복</li> <li>· 재단이나 시에서 축제일정을 분배하였으면 함</li> <li>· 정보가 통합되어 모여야 하는데 각자 준비해서 각자 운영</li> <li>· 축제 등록제를 만들어서 운영 필요</li> <li>→ 무료 홍보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</li> <li>· 「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하여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일정을 분배하였으면 함</li> </ul>
<p><b>홍보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문화예술 전용 행정 게시대 설치 필요</li> <li>· 행정 게시대가 항상 부족하여 불법적인 홍보물이 계속 부착되고 있음</li> <li>·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며, 주민자치회에서도 검토하였으면 함</li> <li>· 종교시설에 대한 공연홍보가 가능하였으면 함</li> </ul>
<p><b>지역 문화격차 해소 방안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호수공원이나 센트럴 파크처럼 공연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필요</li> <li>· 문화 바우처 형태로 서남부 권역 정보 제공</li> <li>· 서부 지역에 있는 콘텐츠를 알릴 필요 있음</li> <li>·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방안 필요</li> <li>· 서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년층들이 문화예술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에 접근하기 어려움</li> <li>→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줘야 좋은 것을 알게 됨</li> <li>· 서부의 어르신들이 난타에 직접 참여하는 등 서부의 행사기획 시, 주민들을 활용하였으면 함</li> <li>· 서부의 경우 공연 자체에 대한 인지와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동부 인원이 서부 지역으로 올 수 있는 플랜 제시 필요</li> <li>· 지역에 균등한 문화 향유기회 부여를 위한 공연 할당제 운영 필요</li> <li>· 화성시민 감면효과 제공으로 문화 진입장벽 완화</li> </ul>

## □ 청년예술 분과 [2022. 9. 28.(수) 19:00 / 카페 슬로프]

구분	내용
<p><b>청년 문화예술 지원 현황 점검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청년 지원 관련 사업 홍보가 부족하며, 이에 따라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 초래</li> <li>· 지원 사업의 말들이 어려워 진입장벽이 높음</li> <li>· 지원이 많은 것은 좋지만 지원 이후의 로드맵도 제시 필요</li> <li>· 자립지원 사업이 신설되면서 청년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느껴짐</li> <li>· 지원 범위를 경기도에서 화성시로 변경한 사례도 긍정적이라 봄</li> <li>· 한시적인 지원 보다는 주기적인 지원이 진행되면 좋을 것</li> <li>· 화성시 청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</li> <li>· 초창기다 보니 경기도 문화재단 사례를 참조하여 발전하면 좋을 듯</li> </ul>
<p><b>문화예술 지원 관련 제언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청년의 네이밍이 변질되어 현재는 열정은 많고 경험은 적은 예술가로 인식되어 실제 지원금이 적어지는 부정적인 결과 초래</li> <li>· 지원의 목표가 필요</li> <li>· 지원금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지원 필요</li> <li>· 단순한 복지성 사업은 지양</li> <li>· 국고사업에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을 것</li> <li>· 웹소설, 웹툰을 쓰는 청년 작가가 많은데 비해 지원이 적음 → 예술가 지원 범주 확대 필요</li> <li>· 주부 드럼 수업을 3년간 진행한 결과 생활문화동아리로 발전하는 사례가 있음 → 일반 시민들이 예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 필요</li> <li>· 생활 예술인들도 공연·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</li> <li>· 청년지원센터 또래강사 프로그램처럼 청년 예술인이 강사로 진행하면 좋을 것</li> <li>· 경기 예술인지원센터의 경우, 정산을 간소화하여 다양한 콘텐츠 생산</li> <li>· 예술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PT, 제출서류와 통보방식이 위압감, 부담감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</li> </ul>
<p><b>홍보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협의체 모집 또한 입소문을 통해 알게 됨</li> <li>· 인스타그램에 정보가 많지만 실제 팔로우 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창출하기 어려움</li> <li>· SNS 홍보의 경우 관심이 있어야 보게 됨</li> <li>·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홍보효과가 좋음</li> <li>· 청년 프로그램의 경우 대학교 등 현장에서 직접 홍보(행사, 참여 프로그램 등)를 진행하면 효과적</li> <li>· 유관기관에 홍보하여 종사자·참여자 모두에게 홍보 필요</li> <li>· 소모임 등 직접적인 홍보 필요</li> <li>· 팔로우 증가를 위한 일시적인 상품 제공 등의 홍보방법 활용</li> <li>· 타 지자체의 경우 리플렛, 굿즈, 공연 등 모든 콘텐츠를 활용하여 한 주제에 대해 인식시킨 사례도 있음</li> </ul>

<p>청년을 위한 사업 제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인 청년 예술가들이 하나의 공연을 기획하여 진행 → 경기 청년관 행사 도입</li> <li>· 화성 청년제는 토크 콘서트, 버스킹을 진행하는데 장르를 융합하여 진행하면 좋을 것</li> <li>· 청년 축제주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</li> <li>·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는 공연자 입장에서 좋지 않았음</li> <li>· 예술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 가능한 콘텐츠 필요</li> <li>· 싸이의 흥뽀쇼처럼 청년이 관심 있는 소재가 있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</li> </ul>
<p>기 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청년이 마스코트가 되는 행사·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</li> <li>· 청년의 네이밍이 변질되어 현재는 열정은 많고 경험은 적은 예술가로 인식되어 실제 지원금이 적어지는 부정적인 결과 초래</li> <li>·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필요 ex. 청년 관련 심사를 청년이 진행</li> </ul>

□ 예술지원(장애예술) 분과 [2022. 9. 29.(목) 10:00 / 생활문화창작소]

구분	내용
<p>논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모에서 미 선정된 작품에도 창작 지원금 되면 좋겠음</li> <li>· 예술인 지원을 받는 분만 계속 받는 현상이 있음</li> <li>→ ‘예술인 안식년’ 등 새로운 규칙 필요</li> <li>· 예술지원센터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의 필요</li> <li>→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예술지원센터로 변경되었는데 그 과정을 모름</li> <li>→ 예술지원센터장 참석하는 간담회 진행 필요</li> <li>· 창작지원금을 통해 스스로 사업 성장해가면 좋지만 현실적이지 않으니 지원금 분배 필요</li> <li>· 단기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건, 화성시 문화예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음</li> <li>· 문화예술 팀장님과 공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음</li> <li>· 재단과 예술 단체들과의 의견 괴리가 있어 간극을 좁혀나갔으면 함</li> <li>· 화성시 장애 예술가 집단이 없어 아쉬움</li> <li>· 공연예술 쪽으로 지원이나 행사가 집중되어 아쉬움</li> <li>· 문인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면 좋을 것 같음</li> <li>· 화성시 관내 예술인들을 키워주는 방식을 시에서 진행해야 함</li> </ul>
<p>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인구가 커지면서 인프라가 인구를 감당하지 못 하는 현실</li> <li>· 동부권과 서남부권의 문화 인프라 차이가 있음에 따라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함</li> <li>· 콘텐츠 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지역 성격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되면 좋겠음</li> <li>· 읍·동사무소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가 나서줘야 함</li> <li>· 장안 남산 체육공원 등 공연 사이트가 다양하게 있음</li> <li>· 동탄 센트럴 파크 뿐 아니라 서남부권에 있는 공연장을 이용할 필요가 있음</li> <li>· 지역별 각자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면 좋겠음</li> <li>· 화성시 문화 거점(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장소에 대한)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</li> </ul>

## □ 생활예술 분과 [2022. 9. 29.(목) 14:00 / 생활문화창작소]

구분	내용
<b>문화공간 실상 및 활용 방안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화성시에서 시급한 부분이 대규모의 공연장인지, 소규모의 다양한 연습공간인지 우선 순위 필요</li> <li>· 대규모 공연장을 설계한다면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나 예술인들의 필요 부분들이 반영되어 실용적인 공간을 만들어 갔으면 함</li> <li>· 생활공간 실태조사 결과 보면 28곳이라 했지만 실상은 부족하게 느낌</li> <li>· 매항 생태공원 근처 새로운 건물 개관 준비 중인데 작가들 위한 공간도 조성해주었으면 함</li> <li>·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건 생활 문화공간 실태조사가 많이 다름 → 다양한 이유들로 사용을 못 하는데, 사용 방안을 정리하고 안건을 진행 했으면 함</li> <li>· 생활문화 공간은 예술인이 직접적으로 사용 잘 안 되고 공원 허가도 매우 어려움 → 사용 조건 완화 방법에 대한 논의 필요</li> <li>· 동탄복합문화센터 1층 로비에서 아트페어 하는데 공간 활용 잘한 것 같음 → 이런 활용들이 지속적이길 바람</li> <li>· 이음터에 운영규정상 전시장, 운영장 이용할 수 없다고 함. 시행 법령 운영 규정 확인 요청</li> </ul>
<b>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외부에서는 서쪽에 문화가 적다고 하나, 인구 밀집 빈도에 따른 차이 같음</li> <li>· 사업 선정도 서부에서 하는 것이 채택이 잘 된다고 관계자도 이야기 함 → 역으로 불균형이 일어난 것 같음</li> <li>· 동부 지역 한 번 공연 할 때, 서부 지역 10번 하지만 성과가 크게 없어서 불균형으로 느끼는 것 같음</li> <li>· 서부에서는 공연 많이 해도 소규모라 파급력이 동부만큼 없는 느낌</li> <li>· 서쪽 지역은 넓어서 자주 해도 작게 다가오는 느낌</li> <li>· 공장 많지만 현실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문화에 대한 관심 없음.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문화에 대한 방법도 논의되면 좋을 것 같음</li> <li>· 찾아가는 것 말고 수혜자가 직접 원하는 전시, 공연팀 등 신청하는 방식</li> </ul> <hr/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서쪽 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것, 문화재단에서 셔틀버스 활용하여 접근성의 어려움 해소 등 방법론적 이야기 필요. 셔틀버스로 서쪽 이동 도와주면 상권 활성화 도움 될 수 있음</li> <li>· 프랑스 시골 마을에서 패스 카드 사용하면 탈 수 있는 셔틀 버스가 있었음 → 화성시에서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음</li> <li>· 축제라고 하면 큰 규모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 도에 축제는 공방 투어 셔틀 버스 이용하여 공방 및 작가 소개하는 형식임</li> <li>· 재단에서 진행하는 ‘예술 플랫폼 사업’이 비슷함. 중복 지원 안 되어서 못 했는데 이런 규정을 풀어주거나 회차를 늘리는 등 사업 확대 방향으로 가면 문제 해소 될 것 같음</li> <li>· 교통 불편하여 접근성이 어려운 것은 관에서 해결해줘야 함</li> </ul>



<p><b>협의체 운영 관련 제언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시에서 조성하는 공간에 대해 설계 과정부터 의견 수렴 가능한 소통 방법을 시민 협의체에서 이끌어 내야 함</li> <li>· 유휴공간은 화성시에 많음. 그 유휴공간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 협의체에서 정리해서 올려야 함</li> <li>· 좋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의견 올려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음</li> </ul>
<p><b>기타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시청과 재단별로 지침이 달라서 행정 절차가 어렵고 힘들 → 행정 절차 간소화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 필요</li> <li>· 담당자 잦은 교체로 인한 불편함은 공감 하실 것 같음. 이러한 부분도 행정적으로 건의 할 필요 있음</li> <li>· 연습 공간 대관비 지원 필요</li> <li>· 전시팀, 공연팀 따라 맞는 장비 등 메뉴얼된 시스템 필요</li> <li>· 주민자치, 사회단체에서 하는 축제 많지만 빈약하고 홍보 부족</li> <li>· 플랜카드 거리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활성화 바람. 기업체 마케팅 활용 등 화성시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서부권, 공장 뿐 아니라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필요</li> </ul>